

4강 사랑의 변증법(I.iii-vi)

1. 지극히 작은 나 vs 너무나 거대한 하나님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데 제 안에 무슨 공간이 있어 하나님을 제 안으로 모신다는 말입니까? (I.ii.2)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저는 있지도 않습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저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당신께로부터 모든 것이, 당신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I.ii.2)

출 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2. 만물을 채우시는 하나님

당신은 흠여짐 없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 채우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채우실 때 당신의 전부를 통틀어 채우십니다. ... 당신은 어디에나 오류가 계시기에 어느 사물도 당신 전부를 오류이 담지 못하는 것입니까? (I.iii.3)

3. 사랑의 변증법

지극히 높고 선하시며 전지전능하며 지극히 자비로우면서 지극히 의로우며 지극히 은밀히 계시면서도 가장 가까이 현존하며 지극히 아름답고도 지극히 강직하며 어디에나 계시나 누구도 의존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변하지 않으시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며 새롭거나 옛것으로 돌아가지도 않으시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I.iv.4)

당신께서는 사랑하지만 다투지 않으시고, 시샘을 하지만 안온하시며, 뉘우치지만 괴로워하지 않으시고, 성내지만 평안하시며, 일을 바꾸지만 뜻을 바꾸지는 않으십니다. 찾아낸 것을 거두어주지만 결코 잃는 일이 없으십니다. 당신은 결코 궁핍함이 없으시나 무엇을 얻을 때 기뻐하시며, 욕심이 없으시나 이자를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당신께 필요 이상 더 바쳐 당신을 인간에게 빚진 자로 만들려 하나 사실 인간이 가진 것 중에 당신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인간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 마치 빚진 것처럼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I.iv.4)

4. 하나님을 모시기 전까지 안식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당신 안에서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내 마음에 오시게 하여 내 마음을 취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내 죄악을 잊고 나의 유일한 선이 되신 하나님을 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노하셔서 비참함을 느끼도록 위협하십니까? ... 아아!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나에게 당신이 무엇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영혼에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너의 구원이다”라고 (I.v.5)

당신이 오시기에 내 영혼의 집이 웅색합니다. 그러니 넓혀주십시오. 무너져가는 집입니다. 고쳐주십시오. ... 누가 그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겠습니까? 당신 말고 없습니다. 주님, 내 숨겨진 허물에서 나를 깨끗해 해 주시고 당신의 종에게 너그러이 대해 주소서 (I.v.6).

5. 사람이 죄인인 중요한 표지

주님, 제가 막상 드리려 하는 말이란 제가 어디로부터 이곳으로 왔는지 모른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말하자면 어디로부터 이 죽을 생명, 아니면 산 죽음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 당신께서 저를 빚으셨습니다. 부친에게서 또 모친 안에서 시간으로 저를 빚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 ... 훗날에 비로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유아기) 제가 하던 짓이라곤 고작해야 젖을 빨고 기분 좋아서 순해지거나, 저의 몸뚱이가 언짢으면 우는 것밖에 더 없었습니다. (I.vi.7)

6. 원죄에 대한 진술: peccata originalia

나는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께 묻사오니 주여 당신의 종은 언제, 어디에서 결백하였나이까? (I.vi.7)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the cravings of sinful man)과 안목의 정욕(the lust of his eyes)과 이생의 자랑(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 어머니 모니카의 노력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 소금 맛을 보았다. 어머니의 젖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빨아먹었다 (I.xi.17)

Q> 하나님은 왜 내가 죄의 길을 걸었을 때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도 그냥 침묵하셨을까?
- 그는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내가 누린 부정한 즐거움에 쓰디쓴 불편함을 섞었다.'

7. 참된 구원은 말씀에서

요 1:4-5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당신은 육신의 부모들로부터 그리고 그들 안에서 적당한 때에 나를 지으셨습니다 (I.vi.7)

나의 즐거움, 나의 명예, 나의 신뢰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주신 선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물들을 내 안에 잘 보존하게 하소서. 이로서 나의 존재는 잘 보존되고 당신이 주신 여러 선물은 더 풍성해져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니, 이는 내 존재가 본래 당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I.xx.31)

8. 오늘의 고백록 한 구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